



대한간호학회지 논문 심사결과 분석 - 2003년 투고 논문을 중심으로 -

조 경 숙¹⁾ · 현 명 선²⁾ · 조 동 숙³⁾

서 론

연구의 필요성

간호연구는 간호지식을 발견하고 계속적으로 발전시키는 작업이며 방법이다. 간호는 정지되지 않고 계속적으로 변하고 있는 전문직종의 하나로 꾸준한 연구를 통해 학문의 발전을 이루어야 한다. 현대 정보기술의 발전과 생활수준의 향상 및 국민의 건강증진에 대한 요구 증진 등의 사회적 추세에 따라 간호도 변화해야 하며 이에 따라 간호연구도 함께 보조를 맞추며 발전하여야 한다.

간호학자 및 간호학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간호학의 발전을 위해 연구를 수행하고 있고 연구결과를 학술지에 발표하고 있다. Woods(1988)는 연구결과를 발표하는 것은 지식을 보급하고, 변화를 보급하고, 연구를 행한 사람에게 보상을 주는 데에 목적이 있다고 하였다. 즉 지식에 대한 기여는 연구결과를 공유하는 것뿐만 아니라 발표한 논문에서 제시된 연구도구, 방법론적 전략, 간호현상에 대한 개념화 등을 통해 다양한 지식을 독자들과 공유할 수 있다는 점을 말할 수 있겠다. 그리고 변화에 대한 기여는 간호교육자 간호행평가 및 임상 간호사가 함께 새로운 지식 및 통찰력을 공유하는 동시에 궁극적으로는 실무에서의 변화에 영향을 주고자 하는 것을 말한다. 또한 보상은 자신의 연구 성과를 발표함으로써 얻게 되는 개인적인 혜택을 말한다(Woods, 1988). 이런 의미에서 볼 때 간호학의 연구성과는 대부분 학술지에 수록되고 있어 연구결과의 발표장인 학술지의 관리가 중요하며 심사과정 또한

중요하다고 하겠다.

Han(2005)은 논문 심사에 대해 투고된 원고를 심사하는 행위는 단순히 심사하는 것 뿐 아니라 올바른 학술지를 만들고 궁극적으로는 그 학문의 발전에 많은 영향을 준다고 강조하였다. 또한 심사자가 가져야 하는 자세에 대해 자신의 논문이 다른 심사자로부터 검토를 받는 느낌으로 심사를 해야 하며, 심사하는 내용도 '논문의 질이 전반적으로 떨어진다' 등의 애매한 표현보다는 표현된 문장이나 사실 하나하나를 상세하게 지적하여 저자가 당면한 문제점을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한다고 제시하였다. 그리고 심사자는 건설적인 비평을 하여 저자가 보지 못하는 과학적 사실들의 단면을 볼 수 있어야 하며 논문 완성도를 높이는데 도움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학문의 발전을 위해서는 연구가 활발히 진행이 되어야 하고 연구결과가 다른 사람들과 공유할 수 있어야 하므로 논문 심사자의 역할은 그 학문의 발전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차지한다고 하겠다. 이에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간호학술지인 대한간호학회지에 투고된 원고에 대한 심사 내용을 고찰하고 분석해보고자 한다. 본 고에 제시하는 내용은 2004년 6월 26일 한국간호과학회 출판위원 및 심사위원 워크숍에서 발표한 내용으로 2003년 투고 논문을 심사한 심사결과지와 심사내용을 분석하여 제시하고자 한다.

연구 목적

본 고에서는 2003년에 투고된 원고에 대한 심사위원들의 심사평을 심사결과에 따라 요약 분석해 보고자 한다.

주요어 : 논문심사, 학술지

1) 경원전문대학 간호과 교수, 2) 아주대학교 의과대학 간호학부 부교수, 3) 서울보건대학 간호과 부교수

투고일: 2006년 2월 8일 심사완료일: 2006년 2월 21일

- 게재불가, 수정 후 재심, 수정 후 게재 가능한 심사결과와 심사 내용을 분석한다.
- 두 명의 심사위원 간에 심사결과가 두 단계 이상 차이가 나는 사례의 심사내용에 대해 분석한다.

연구 방법

대한간호학회지에 2003년 투고된 원고를 심사한 심사위원의 심사내용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2003년도에 총 217편의 국문원고가 투고 되었는데, 이 중 8편은 연구자가 취소를 하였다. 논문의 원고는 2인의 심사위원이 심사한다는 대한간호학회지 투고규정에 따라 논문 각 편당 2인의 심사자 심사내용을 분석하였다. 209편의 논문에 대해 40명의 심사자가 게재 가능한 심사결과를, 117명의 심사자가 수정 후 게재를, 73명의 심사자가 수정 후 재심을, 96명의 심사자가 게재불가의 심사결과를 제시하였다. 이 중 본 고에서는 209편의 논문 중 비교적 심사 항목에 따라 구체적으로 심사내용을 진술한 심사자의 심사결과를 중심으로 분석을 하였다. 따라서 심사위원 두 명이 일치하여 게재불가를 내린 논문 중 21편, 심사위원 두 명이 일치하여 수정 후 재심을 내린 논문 중 17편, 심사위원 두 명이 일치하여 수정 후 게재를 내린 논문 중 94편과

심사 결과가 두 단계이상 차이가 나는 33편의 심사내용에 대해 총 165편의 논문심사 내용을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본 고에서는 심사판정결과인 게재불가, 수정 후 재심, 수정 후 게재 가능에 따라 심사내용을 연구의 필요성, 연구방법, 연구결과, 논의, 결론 및 제언, 기타 항목에 따라 분석하여 제시하고자 한다.

게재불가 심사의 내용

분석한 21편의 게재불가 논문은 개념분석 연구 1편, 사례분석 논문 1편, 종설 1편, 조사연구 6편, 서술적 상관관계 연구 6편, 요인분석 연구 1편, 도구개발연구 1편, 비교연구 1편, 실험 연구 1편이 포함되었다.

연구의 필요성에서 지적된 심사내용으로는, 개발하고자 하는 개념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이 이해가 가지 않는다는 점(개념 분석 연구), 연구목적과 연구현상이 명료하지 않음(사례 분석 연구), 평이한 주제로 새로운 시각을 제시하지 못함(종설), 기존의 도구의 제한점에 대한 설명이 부족(도구개발), 주요 변

〈Table 1〉 Reviewer's review results of not acceptable papers

Contents area	Contents of review results*
Research Problem	<ul style="list-style-type: none"> • Lack of statements for the need of the research • No clear statements of the research subject and research phenomenon • Lack of explanation about the research concept • Lack of statements about the previous research • Lack of logical relevance with the theoretical background
Method	<ul style="list-style-type: none"> • Lack of explanation about the concept analysis process • Lack of explanation about the rationale of sample size and sample selection procedure • Lack of specific statements about the instruments • Lack of specific statements about the reliability and validity of the instruments • Inconsistency of the research design with the study subject • Lack of statements about the sample representative and sample selection procedure
Result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Lack of the results significance • Inconsistency of the research results with the study subject • Not suggesting the new knowledge by the research • Lack of the implication of the research
Result Discussion	<ul style="list-style-type: none"> • Not suggesting the implications based on the research results • Mix statements of the previous study's results with the researcher's interpretation • Lack of logical inference by the results and the previous literature
Conclusions/ Suggestion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Lack of conclusion based on the research results • Not summarizing the core contents of the subject, method, results, and discussion • Lack of statements about conclusion of the research
Other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Not accordance with the paper submission guideline(reference, Journal name) • Problems in English abstract

* No. of papers=21

수에 대한 설명이 부족(비교연구), 연구의 필요성이 논리적이 지 못함(실험연구), 선행연구에 대한 언급과 관련성이 부족, 언급한 이론과의 논리적인 연결이 되지 않음(서술적 연구)등의 내용이 지적되었다.

연구방법에서는 개념분석 과정에 대한 설명이 생략되었음(개념분석 연구), 표본 수에 대한 근거와 표본 추출 방법에 대한 설명이 부족(도구개발), 도구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부족, 이용한 도구의 타당성 문제(실험연구), 연구목적에 맞는 연구설계를 제시하지 않음, 도구의 신뢰도와 타당도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없음, 도구의 수정 보완 과정에 대한 설명이 없음, 표본의 대표성 문제, 대상자 선정과정에 대한 자세한 기술 없음(서술적 연구)등의 내용이 지적되었다.

연구결과에서는 속성이 도출된 과정 및 경과에 대한 진술이 없음(개념분석 연구), 구체적인 분석결과가 부족(사례 분석), 연구결과가 의미를 주지 못함(실험연구), 연구 목적에 맞는 결과를 제시하지 못함, 기존 연구결과와의 차별성이 없고 새로운 연구결과를 제시하지 못함, 결과가 줄 수 있는 유용성과 가치가 낮음(서술적 관계 연구)등의 내용이 지적되었다. 논의에서는 간호실무, 연구, 교육면에서 제시된 의의가 본 연구결과를 토대로 제시되지 못했음(사례 분석 연구), 심층적인 논의가 이루어지지 못함(총설), 본 연구에서 개발된 도구의 강점 및 다른 도구와의 차이점 등의 서술이 부족(도구개발), 선행연구와의 관련성과 연구자의 해석이 분별이 없이 진술된 점(비교연구), 연구결과를 지나치게 비약시킨 점(실험연구), 자료 및 문헌을 통한 논리적인 추론과 합리적인 논의 및 진술

이 부족(서술적 연구)등의 내용이 지적되었다.

결론 및 제언에서는 본 연구결과의 특성을 반영한 결론이 부족(개념분석 연구), 연구목적, 설계, 방법, 결과, 논의의 핵심적인 부분이 정리가 되지 않았으며, 결과의 나열만 있고 결론이 없는 점(서술적 연구)등의 내용이 지적되었다.

기타 항목으로는 참고문헌이 투고규정에 맞지 않은 점, 영문 초록의 영어 문제, 학회지 표기에서 약어가 맞지 않은 점 등이 지적되었다<Table 1>.

수정 후 재심 심사의 내용

분석한 총 17편의 논문은 실험연구 5편, 개발연구 3편, 중설 1편, 양적 연구 8편이 포함되었다.

연구의 필요성에서는 처치에 대한 과학적 설명과 근거가 부족함, 기존의 연구 흐름이나 경향에 대한 소개가 부족함, 연구 주제의 필요성을 지지하는 내용이 부족함, 연구 필요성의 부각이 필요하다는 점이 지적되었으며(실험연구), 개발하고자 하는 프로그램의 내용이 불명확하며, 명확한 연구의 필요성의 진술이 필요함(개발연구), 연구자의 관심 있는 현상이 명확하지 않음,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이 연결되지 않음, 관심변수에 대한 설명이 부족함(양적 연구) 등의 내용이 지적되었다.

연구방법에서는 가설설정이 필요함, 표본 수에 대한 근거가 없음, 측정 시기에 대한 근거 제시 필요, 이월효과 가능성과 recall effect 가능성에 관한 언급이 없음, 자료수집 장소 선정

<Table 2> Reviewer's review results of review after revision

Contents area	Contents of review results*
Research Problem	<ul style="list-style-type: none"> • Lack of statements about the treatment and lack of rationale of the treatment • Lack of introduction about the research trends • Lack of statements about the research subject • Lack of clear statements of the interested phenomena
Method	<ul style="list-style-type: none"> • Need of the hypothesis statements • Need of the statements about rationale for the sample size • Need of the statements about rationale for the measurement time • Need of statements about the possibility of carry-over effect and recall effect • Need of statements about the rationale of the sample selection • Need of specific statements about data collection procedure • Need of specific explanation about the instruments
Result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Inconsistency of the research results with the research subject
Result Discussion	<ul style="list-style-type: none"> • Irrelevancy between research results and researcher's interpretation and implication • Lack of logical explanation • Not inferring based on the previous research
Conclusions/ Suggestion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Insufficient statements about the conclusion • Lack of clear and specific implication
Other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In case of review article, lack of critical review and unique analysis about the articles

* No. of papers=17

기준 제시가 필요(실험연구), 치료지속시간을 정한 근거, 개발한 프로그램의 독창성 진술이 필요(개발연구), 연구 대상자 선정 근거 제시, 자료수집 과정에 대한 구체적인 서술, 도구의 적절성과 도구에 대한 자세한 설명, 목적에 맞는 자료 분석 방법 제시가 필요함(양적 연구)등의 내용이 지적되었다.

연구결과에서는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에 맞는 결과에 대한 추가적인 제시가 필요함(실험연구), 의미 없는 결과를 제시한 부분이 있음(개발연구), 결과 제시가 불충분함, 연구결과와 논의가 혼합되어 진술되어 있음(양적 연구) 등의 내용이 지적되었다.

논의에서는 논리적인 진술이 필요함, 학문이나 실무에 대해 기여하는 점에 대한 진술, 문헌과의 비교를 통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함(실험연구), 연구자의 의견제시가 없음, 설명력과 논리적인 설명이 부족함(개발연구), 본 연구결과와 다른 연구결과와 비교하면서 논리적인 기술이 필요, 연구결과에 근거하지 않은 추론이 많음(양적 연구)등의 내용이 지적되었다. 결론 및 제언에서는 결론이 결과의 요약에 그쳤음(실험연구), 제언이 너무 포괄적이고 애매함 (양적 연구)등의 내용이 지적되었다.

그 밖에 종설에서는 비판적인 고찰이나 독창적인 분석이라기보다는 관련 주제에 대한 요약에 가까운 점 등이 지적되었다<Table 2>.

수정 후 게재 가능 심사의 내용

수정 후 게재 가능에 해당하는 논문은 총 94편이었다. 심사자의 심사내용을 분석한 결과 서론에서 지적한 내용을 보면, 연구주제에서 연구 제목 기술에서의 문제(21편), 제목과 연구 목적이 일치하지 않음(4편) 등의 내용이 있었다. 또한 이론적 기틀을 제시한 근거문헌의 문제(4편), 문헌고찰 문제(18편), 주요개념과 기존 연구와의 관련성을 논리적으로 제시하지 못함(8편), 연구가설의 문제점과 연구의 제한점 제시가 필요함(5편), 용어정의의 일관성 및 명확성이 부족함(29편) 등의 내용이 있었다.

연구방법에서는 연구 설계를 다시 할 것을 권고함(3편), 연구 설계방법을 표로 제시할 것을 요구하거나 연구 설계방법을 기술하도록 권함(5편), 사용한 연구도구에 문제가 있음(34편), 연구절차의 구체적인 제시 필요(19편), 중재프로그램의 구성에 대한 구체적인 기술 필요(15편) 등의 내용이 있었다. 그 외 변수선정 기준에 대한 근거를 제시할 것을 요구한 경우가 9편이었고 실험방법의 문제점을 지적한 경우도 2편이 있었다. 연구대상자에 대한 심사에서는 연구대상자 선정의 문제(18편), 표본추출 방법의 적절하지 않음(12편), 표본 수에 대한 근거가 미흡함(6편) 등의 내용이 있었다. 자료 수집 방법에서는 자료 수집과정에서 윤리적인 측면에 대한 고려가 없음(4편), 자료수집 방법이 부적절함(1편) 등의 내용이 있었

<Table 3> Reviewer's review results of accept after revision

Contents area	Contents of review results
Research Problem	<ul style="list-style-type: none"> • Problem of statements about the research subject and title • Lack of logical relevance with the research concept and the previous research • Insufficient literature review • Lack of consistency and accuracy for the definition of the research terms • Problem of statements for research hypotheses and research limitations
Method	<ul style="list-style-type: none"> • Necessity for description of research design • Problem of research instruments • Needs for accurate description of research procedure • Needs for precise description of intervention program • Problem of research subject selection procedure • Problem of sample selection method • Problem of data analysis and statistics
Result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Inaccurate description of results • Inconsistency of the research results with the purpose for research
Result Discussion	<ul style="list-style-type: none"> • Lack of accurate and logical explanation • Lack of logical inference by the results and the previous literature • Needs for discussion based on the results
Conclusions/ Suggestion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Inappropriate description of conclusion • Lack of conclusion based on the research results
Other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Not accordance with the paper submission guideline(reference, table) • Problems in English abstract

* No. of papers=94

으며 자료 분석 및 통계 방법의 부적절함을 지적한 경우가 24편으로 가장 많았다.

연구결과에서는 연구결과를 서술할 때 객관적 자료를 제시하지 못한 점과 표에 관한 설명이 일치하지 않음(8편), 연구목적과 일치하는 결과를 제시하지 못함(8편), 연구결과 표의 보강이 필요함(4편) 등의 내용이 있었으며, 연구결과를 부정확하게 기술한 점에 대한 지적이 30편으로 가장 많았다. 또한 의미 있는 결과에 대한 통계량 제시가 부족함(4편), 연구결과에 따른 연구자 기술이 필요함(9편), 연구결과와 논의가 혼합되어 있음(2편) 등의 내용이 있었다.

논의에 대한 심사에서는 명확하고 논리적인 기술이 필요(25편), 본 연구결과와 선행연구와의 연관성을 고찰한 논의가 필요(20편), 결과에 근거한 논의의 기술 필요(10편), 간호교육, 실무중재 적용을 위한 논의 보강이 필요함(9편) 등의 내용이 있었다. 그 외에 다양한 분석을 통한 논의 보강이 필요하다는 경우가 4편이었고 논의를 서술할 때 문헌에서 나온 기술인지 연구자 의견인지 혼돈된다는 경우가 1편이었으며 심지어는 연구와 상관없는 논의라는 경우도 3편이 있었다.

결론 부분에서의 심사내용으로는 요약 및 결론에 대한 적합한 기술 필요(4편), 연구목적과 맞지 않음(3편) 등의 내용이 있었다.

기타 항목에서 심사내용은 논문 투고 규정에 맞도록 참고문헌, 도표 등을 수정할 것이 22편으로 많았고 영문초록 수정요구가 15편, 절차법에 유의하라는 경우가 1편이었다<Table 3>.

심사자 간 두 단계 이상 차이가 있는 논문의 심사내용

심사자간 심사판정이 두 단계 이상 차이 나는 논문은 모두 33편이었다. 두 심사자간의 심사 내용을 비교분석한 결과 심사 지적 사항이 거의 일치하면서 두 단계 이상 차이 나는 경우가 3편이었고 부분적으로 일치하는 경우가 11편이었으며 심사내용이 거의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19편이었다. 이중 7편은 한 심사자는 게재가능을 다른 심사자는 게재불가로 심사해 3단계가 차이 나는 경우도 있었다<Table 4>.

먼저 3단계가 차이 나는 논문 7편의 심사위원 심사평을 비교하였다. 첫 번째 연구는 질적연구로 게재 가능으로 평가한

심사자는 적절한 주제 선정과 문제를 제기하였고 연구문제도 구체적이고 질문도 적절하고 자료 분석 적절하나 이론적 민감성과 연구의 신뢰도와 타당도를 높이기 위한 노력과 명확한 연구결과를 제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반면에 게재불가로 심사한 경우는 문제 제기가 약하고, 연구방법의 사용에 대한 지지 제공이 부족하고, 이론적 민감성 획득이 피상적으로 기술되었으며, 근거이론방법의 목적으로서 이론적 표집이라고 보기 힘들고, 자료수집이 불충분하며, 면접질문이 새로운 이론적 틀을 제시 못하고 있다고 평가하여 동일 항목에 대해 2인의 심사자가 거의 상반된 심사평을 보여주고 있다.

두 번째 연구는 종설로 게재 가능의 경우는 새로운 간호 지식체를 창출할 수 있는 연구방법을 제시하였고, 기존의 질적 자료를 활용하여 이차분석연구를 활성화시키는데 기여할 수 있는 논문으로 평가하였다. 하지만 게재불가의 경우는 주제선정이 부적절하고, 연구자의 분석보다도 나열에 가깝고, 연구의 질 평가에 대한 기술이 부족하며, 연구자의 비판적 분석이 미흡하다고 평가하였다.

세 번째 연구도 종설로서 게재 가능으로 심사한 심사자는 학회지 독자에게 매우 유용한 정보로 평가했으나 다른 심사자는 연구주제의 독창성이 부족하고, 종설연구에서 자신의 논지나 비판적 분석이 매우 미약하다고 평가하면서 게재불가로 판정하였다.

네 번째는 양적 연구로 한명의 심사자는 주제 선정이 적절하고, 연구의 필요성도 명쾌하며, 연구결과와 논의 부분도 논리적으로 서술한 것으로 평가해 게재 가능으로 판정한 것에 비해 게재불가로 판정한 다른 심사자는 연구의 의의나 필요성에 비하여 연구목적이 명료하지 않고, 연구방법이나 결과제시 등이 일관성이 없다고 평가하였다.

양적 연구인 다섯 번째 논문은 한명의 심사자는 통계분석, 결과분석이 부적절하고 실험군과 대조군의 배정 방법에 대한 언급이 없다고 하였으나 게재 가능으로 평가하였다. 그러나 다른 심사자는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원인 변수를 통제하지 못한 문제와 이론적 배경과 실험 디자인간의 논리적 연계성이 부족한 점, 측정 변수 선정의 근거 불충분함, 대상자의 위험에 따른 윤리적 문제 발생 가능성을 지적하여 게재불가로 심사하였다.

<Table 4> Inconsistencies of the review results among the reviewers

Review results	Acceptable	Accept after Revision	Review after Revision	Not Acceptable	No. of Papers
Accord		●		●	3
Poor accord	●	●	●	●	10
Inconsistent	●	●	●	●	2
	●			●	10
				●	7
Total					33

여섯 번째 양적 연구의 심사내용에서는 한 심사자는 논문 자체로는 문제없지만 박사학위 논문자료에서 실태 내용만 발췌하여 내용이 빈약하다고 하였으나 게재 가능으로 평가하였다. 게재불가로 심사한 다른 심사자는 연구 주제 선정이 부적절하고, 주요개념과 기존연구와의 관련성이 약하고, 연구의 필요성이 미약하며, 개념 간 차이점이 모호하고, 연구도구에 대한 이론적 근거의 부재, 조사도구에 대한 설명부족, 연구 목적의 미약 등으로 결과 및 논의의 한계가 있다고 하였다.

일곱 번째 양적 연구에서는 한명의 심사자는 논문의 조건을 잘 갖춘 논문이나 자료수집 과정 내용의 보충이 필요하고 문헌적 논의가 미약하다는 평으로 게재 가능이라고 판정하였다. 하지만 다른 심사자는 연구의 필요성과 중요성이 구체적이지 못하고, 연구 필요성과 목적 및 결과보고의 일관성이 없으며, 논문의 결과가 타당하고 신뢰할 만한 자료인지에 대한 판단이 어렵다고 게재불가로 판정하였다. 이들 7편의 논문에서는 두 명의 심사자간에 관점 차이가 나타나 심사판정도 3단계나 차이를 보였다.

다음 3편의 연구는 2명의 심사자간 심사 내용은 거의 비슷하지만 2단계의 판정 차를 보인 경우이다. 첫 번째는 양적 연구로 두 심사자가 용어 구분 및 정의의 필요성, 연구도구에 대한 신뢰성과 타당성에 대한 설명 보완, 연구결과에 따른 연구자의 해석적 논의 요망 등을 지적했으나 수정 후 게재 가능과 게재불가로 판정하였다. 두 번째 양적 연구에서도 2명의 심사자가 연구 목적과 연구 설계가 맞지 않음, 주요 변수의 관계를 제시하는 문헌고찰 부족, 용어 정의와 연구도구 수정 등을 동일하게 지적하였으나 수정 후 게재 가능과 게재불가로 심사판정은 차이를 보였다. 세 번째 논문은 종설로 2명의 심사자가 연구제목 및 목적, 논문내용의 불일치, 대상논문 분석 방법의 근거가 미흡함 등을 공통적으로 지적했으나 2단계의 판정 차이를 보였다.

그 외의 심사내용은 일부 일치하지만 수정 후 게재와 게재불가로 2단계의 차이를 보인 논문이 10편이었고 게재가능과 수정 후 재심으로 2단계의 차이를 보인 경우가 1편이었다. 이들 논문을 심사한 내용 중 빈도가 높은 항목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연구의 독창성 결여, 제목과 논문 내용의 불일치, 연구의 필요성 서술 미흡, 용어정의가 부정확함, 연구도구의 구성이나 타당성 및 신뢰성에 대한 서술 부재나 보완, 연구의 필요성, 연구 목적 및 결과 보고가 일관성이 없음, 통계분석이 부적절함, 연구 목적 순서대로 연구결과와 명확한 서술이 필요, 연구결과에 대한 연구자의 객관적 해석과 논의 보완 필요, 논의에 있어 문헌에 있는 내용과 연구자의 관점의 혼돈 등이다.

나머지 12편의 논문에서는 두 심사자간 심사내용도 일치하지 않았고, 심사판정에서도 2단계의 차이를 보였는데 이 중

10편은 수정 후 게재와 게재불가로, 2편은 게재 가능과 수정 후 재심으로 판정되었다. 이들 심사 내용 역시 앞서 지적한 주요 지적 사항과 큰 차이는 없었다.

논 의

Kim 등(2005)은 간호 분야의 패러다임에 대해 인간, 건강, 기타 간호 분야에서 관심을 갖는 현상에 대해 본질적으로 어떤 철학,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가에 관한 내용이라고 하였다. 이러한 패러다임은 크게 실증적 경험주의적 관점과 자연주의적 관점으로 말할 수 있으며, 논문에 대한 비평과 심사도 이와 같은 패러다임과 맥을 같이 해야 한다고 생각된다. 즉 경험주의적 세계관은 어떤 개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개체를 작은 부분들로 세분화하여 이해한 다음 그 이해된 부분들을 다시 합하여 전체를 이해한다는 접근 방법을 말한다. 그리고 경험주의적 세계관의 관점에서 관심을 갖는 현실은 그것을 경험하는 사람과는 무관하게 존재하는 객관적인 현실이다. 한편 자연주의적 패러다임은 인간의 행동이나 사회적 상호작용이 일어나는 문맥을 고려하며 인간의 주관적 경험에 입각한 공감적 이해에 초점을 둔다. 그리고 자연주의적 패러다임에서는 현실이나 실체는 유일한 것이 아니며 그것을 경험하는 대상에 따라 다양한 현실과 실체가 존재한다고 본다. 이에 논문을 심사하는 심사자들은 간호의 중심개념인 인간, 건강, 간호, 환경 등을 바라보는 각자의 패러다임의 관점을 가지고 심사에 임하는 것이 요구된다고 하겠다.

한편 본 고에서 두고 논문을 심사한 심사위원들의 심사평을 분석한 결과 연구의 필요성에서 각 연구 설계가 지니고 있는 주요한 특성이나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게재불가의 심사결과를 제시한 경우가 많음을 알 수 있었다. 게재불가 사유를 구체적으로 보면, 개념 분석 연구의 경우 그 개념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이 결여된 점을 지적하였고, 도구개발의 경우 기존의 도구의 제한점에 대한 설명이 부족한 점이 지적이 되었으며, 서술적 연구에서는 선행연구에 대한 관련성이 부족하며 언급한 이론과의 논리적인 연결이 되지 못한 점 등이 지적이 되었다.

그리고 수정 후 재심에 해당되는 논문에서는 게재불가에 해당되는 논문에서 지적된 심사내용과 흡사하지만 치명적인 결함이 덜한 경우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었으며, 수정 후 재심의 사유는 주로 연구방법에 대한 지적이 많았다. 실험연구의 경우 가설설정에 관한 내용, 표본 수, 측정 시기, 외생변수 통제에 관한 내용이 지적이 되었으며, 양적 연구에서는 연구대상자 선정 기준, 자료수집 과정에 대한 서술, 도구에 대한 신뢰도 및 타당도에 대한 지적이 많았다. 그리고 논의에서는 본 연구결과와 다른 연구 결과와의 비교를 통한 논리적인 진

술과 연구자의 논리적인 해석 등에 관한 지적이 많았다.

다음으로 수정 후 게재 가능에 해당하는 논문에서는 수정이 요구되는 내용이 주로 서론에서 연구제목 기술상의 문제에 관한 사항, 문헌고찰 문제, 용어 정의의 명확성이 부족한 점 등에 대한 지적이 가장 많았는데 이런 심사자의 지적사항은 비교적 연구자가 수정하기가 용이한 것이었다. 연구 방법에서는 연구도구의 문제, 연구대상자 선정의 문제, 자료 분석 및 통계 방법이 부적절함을 지적한 경우가 많았다. 연구결과에서는 부정확한 기술을 지적한 경우가 많았고, 논의를 명확하고 논리적으로 표현할 것을 요구한 사항이 많아 수정 후 재심에서의 지적내용과 유사하였다.

이는 151개의 논문을 분석한 Bordage(2001)의 보고에서 게재불가의 이유가 부적절한 통계, 결과의 확대해석, 부적절하거나 불충분한 측정도구, 대상자 수의 부족이나 편중, 논문을 이해하기가 어려움, 불충분한 문제 진술, 보고 된 자료가 일관성이 없거나 부정확함, 부정확하고 너무 오래된 인용문헌, 부적절한 자료, 표와 그림의 결함 등의 순으로 나타나 본 고의 지적사항과 유사하지만 순위에서는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중 부적절한 통계와 결과의 확대해석은 시정할 수 있지만 다른 문제는 치명적인 결함으로 게재거부의 이유가 된다고 보고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두 심사자간의 판정이 2단계 이상 차이 나는 논문은 모두 33편이었다. 먼저 3단계가 차이 나는 논문은 7편이었는데 이는 한 심사자는 게재가능을 한 심사자는 게재불가의 심사결과를 제시한 것이다. 구체적인 심사내용을 보면, 한 심사자는 주제와 연구방법, 분석 등이 적절하다고 평가했으나 다른 심사자는 모든 항목에서 부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어 동일 평가항목에 대해 2명의 심사자가 거의 상반된 심사결과를 나타내고 있었다. 이는 논문을 투고한 연구자로 하여금 혼돈과 심사결과에 대한 불만을 초래하는 요인이 된다. 한국간호과학회 2003년 출판위원회에서 대한간호학회지에 논문을 투고한 투고자의 심사결과에 대한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심사위원의 상반된 지적에 관한 불만'이 16%로 나타나 심사위원들이 일관성이 있고 전문성을 갖춘 심사를 할 수 있도록 학회가 심사지침의 표준화와 심사위원 지속적 훈련을 위한 교육내용을 꾸준히 개발하여야 한다고 하겠다.

한편 심사자간의 심사 내용은 거의 비슷하거나 일부 일치하는데 2단계의 판정 차를 보인 경우(수정 후 게재와 게재불가인 경우, 게재가능과 수정 후 재심인 경우)가 14편 있었다. 여기에 포함되는 심사내용으로는 연구의 독창성 결여, 연구의 필요성 서술 미흡, 연구의 필요성, 목적 및 결과 보고가 일관성이 없음, 연구결과에 대한 연구자의 객관적 해석과 논의 보완 필요, 논의에 있어 문헌에 제시된 내용과 연구자 관점의 구별 부족 등이 지적되었다. 하지만 일부이긴 하지만 이미 중

료된 연구인데 연구 설계를 수정하라는 지적을 하면서 수정 후 게재 가능으로 심사한 것과 연구결과와 논의를 합쳐서 쓰라는 내용 등의 심사내용이 있어 심사의 적절성에 의문이 제기되는 경우도 있어 이에 대한 방안 모색이 필요하리라 생각된다.

또한 한국간호과학회 2003년 출판위원회에서 조사한 바에 의하면 대한간호학회지에 논문을 투고한 투고자들의 전반적 심사 만족도는 5점 만점에서 3.47로 대체로 만족하는 편으로 조사되었다. 그러나 심사결과에 대한 구체적 불만사항으로는 서론에서 구체적으로 지적하지 않은 점, 연구방법에서 충분한 설명 없이 연구방법 변경을 요구하는 것, 분석방법에 대한 틀린 지적, 문제만 지적하지 말고 대안지적 필요, 상황 고려 없이 방법론적 취약점만 지적, 게재 불가의 근거 미약, 성의 없는 심사, 내용의 깊이나 창의성 보다는 형식 위주의 평가로 보고가 되었다. 897편의 논문 저자로부터 심사의 질에 대한 만족도를 조사한 Weber, Katz, Waeckerle와 Callahan(2002)의 연구에서는 게재 승낙을 받은 저자의 만족도가 게재가 거부된 저자보다 높았다. 심사평에 대한 저자의 만족도는 심사의 질과는 상관이 없고 수락여부와 상관을 보였다. 또한 게재 거부 판정을 받은 저자들은 심사소요 기간이 너무 긴 것과 편집자와의 의사소통에 불만을 나타냈다. 이는 심사자들의 심사기간을 줄이는 방안의 모색이 필요하고 심사평의 용어선정 등에 신중해야 하며 온라인 논문투고관리 시스템을 이용하여 투고자가 심사진행과정을 확인할 수 있는 체계가 필요함을 보여준다고 하겠다.

이러한 심사의 불만을 줄이고 원고를 적절하게 심사하려면 직관이 아니라 훈련과 경험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는데 이런 경험은 체계적인 방법에 의해 얻어질 수 있다(Provenza & Stanley, 2005). 체계적인 심사를 위해서는 심사과정에서 필수적인 질문을 자세히 수록한 평가목록을 이용할 수 있다. 또한 심사위원을 대상으로 논문평가 워크숍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기존의 우수한 심사평가지를 지침으로 제공하면 도움이 되리라 사료된다.

한편 Benos, Kirk 와 Hall(2003)은 심사자가 지녀야 하는 책임에 대해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즉 심사자는 논문에 대해 정직하고 비평적인 평가를 해야 하며, 논문 원고의 존재 자체에 대해 기밀을 유지해야 하며, 표절을 묵과해서는 안 된다. 또한 심사자는 자신이 전문가인 분야에 한해서 심사를 수락해야 하며, 과학적인 판단에 영향을 주는 편견을 피해야 하고 친분관계 등이 있는 경우 이를 밝혀야 하며, 심사기일을 지킬 수 있는 경우에만 심사에 동의해야 한다. 그리고 심사자는 중복게재, 기만, 표절 또는 연구에서 보고 된 동물이나 인간에 관한 윤리적 관심에 대한 책임도 가져야 하며, 학문적이고 건설적인 방법으로 심사평을 작성해야 한다. 따라서 이와 같은

자세로 심사를 한다면 대한간호학회지의 발전과 훌륭한 논문의 게재를 촉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결론 및 제언

이상으로 대한간호학회지에 2003년 투고 논문을 중심으로 심사위원의 심사결과에 대해 심사내용을 분석하였다. 대부분의 심사자들이 심사항목에 따라 구체적으로 의견을 제시하며 수정 사항을 권고하고 있었는데, 이는 논문을 투고한 저자에게 논문의 질적인 향상과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도움이 되었으리라 생각된다. 또한 심사결과와 심사 내용과의 일치성 여부나 적절성에 있어서 의문이 제기된 경우도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반면에 일부 심사자들은 구체적으로 지적하기 보다는 포괄적으로 모호하게 지적한 점도 있었다. 이에 심사자들은 간호지식체의 전달 및 보급을 위한 중요한 학술지의 발전을 위해 사명감을 가지고 심사에 임해야 하며 학회는 이를 위한 방안을 제시하고 적극적인 심사자 훈련이 요구된다고 생각된다. 이상의 분석한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제언을 하고자 한다.

- 심사위원을 위한 논문평가 워크숍을 지속적으로 개최하여 논문종류별로 모델논문을 선정하여 항목별 평가질문을 근거로 평가하고 그 결과를 비교 분석하여 심사의 질을 제고하고 심사자간 일치도를 높이는 방향을 모색한다.
- 심사위원의 전공, 관심분야, 논문목록 등을 데이터베이스화하여 심사자에게 적합한 전공과 관심분야의 논문을 심사 의뢰하여 심사의 질을 높이도록 한다.
- 논문심사 평가지를 정량화(점수화와 판단 기준점 제시)하여 심사결과에 적용하도록 하여 심사의 타당도를 제고한다.

- 통계 심사 자문제도를 도입하여 필요시에 좀 더 전문적인 심사가 이루어지도록 한다.
- 참고문헌, 영문초록의 스크리닝 시스템을 개발한다.
- 논문투고관리 시스템을 온라인화하여 심사기간이 단축되도록 하고, 투고자가 심사진행사항을 점검해 볼 수 있도록 한다.

References

- Benos, D. J., Kirk, K. L., & Hall, J. E. (2003). How to review a paper. *Adv Physiol Educ*, 27(2), 47-52.
- Bordage G. (2001). Reasons reviewers reject and accept manuscripts: the strengths and weaknesses in medical education reports. *Acad Med*, 76, 889-896.
- Han, D. S. (2005). Reviewer's role, *The Korean Association of Medical Journal Editors 2005 Workshop* (pp. 19-27), Seoul. The Korean Association of Medical Journal Editors.
- Hyun, M. S., & Cho, K. S. (2004). Analysis of Review Results,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2004 Workshop* (pp. 1-29), Seoul, Korean Society of Nursing Science.
- Kim, K. B., Sin, K. R., Kim, S. S., Yoo, E. K., Kim, N. C., Park, E. S., Kim, H. S., Lee, K. S., Kim, S. Y., & Seo, Y. O. (2005). *Qualitative research methodology*. Seoul : Hyunmoonsa.
- Provenzale, J. M., Stanley, R. J. (2005). A systemic guide to reviewing a manuscript. *Am J Roentgenol*, 185(4), 848-854.
- Weber, E. J., Katz, P. P., Waeckerle, J. F., & Callahan, M. L. (2002). Author perception of peer review : impact of review quality and acceptance on satisfaction. *JAMA*, 287(21), 2790-2793.
- Woods, N. F. (1988). *Nursing Research : Theory and Practice*. Mosby Com.

Analysis of Review Contents of the Submitted Papers in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 Focus : The Submitted Papers in 2003 -

Cho, Kyung-Sook¹⁾ · Hyun, Myung Sun²⁾ · Cho, Dong-Sook³⁾

1) Department of Nursing, Kyungwon College, 2) School of Medicine, Division of Nursing Science, Ajou University

3) Department of Nursing, Seoul Health College

Purpose: The objective of the study is to analyze the review contents of reviewers for the submitted papers in the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in 2003. **Method:** The review contents of the 165 papers were selected 217 papers that were submitted in 2003. Among those 165 papers, the 21 papers belonged to the 'Do not publish' list and 17 papers, 'Revise manuscript and resubmit', list and the 94 papers, 'Publish if revisions are made'

list. There are more than two level differences among the four levels of decision in acceptance of publication in 33 papers. **Results:** The analysis of the review contents for the papers were suggested according to review categories : introduction, method, results, discussion and conclusion. In addition, if papers had more than two levels of review they were rated poor accord or inconsistent. **Conclusion:** For the quality of the academic journal and development of the nursing science, it is important to disseminate and publish the research paper. Therefore, review of the submitted paper is also important. Implications for the profitable review were suggested in the study.

Key words : Journals, Review

- Address reprint requests to : Hyun, Myung Sun

School of Medicine, Division of Nursing Science, Ajou University

5, Woncheon-dong, Yeongtong-gu, Suwon, 443-749, Korea

Tel: +82-31-219-5156 Fax: +82-31-219-5094 E-mail: mhyun@ajou.ac.kr